

The Korean Government will Invest 420 Million US Dollars in IoT Home Appliances R&D

주형환 장관 "IoT 가전, 신산업으로 육성. 5년간 5천억 R&D 투자"

이동희 기자 입력 2016.12.22 11:00

산업부, IoT 가전산업 간담회."신규 공공주택에 IoT 가전 도입"



IoT Smart Home provided by BeaconIoT



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© News1 송원영 기자

(서울=뉴스 1) 이동희 기자 =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"**향후 5년간 사물인터넷(IoT) 가전산업 분야에서 민관합동으로 5000억원의 연구개발(R&D)비를 투자할 것**"이라고 말했다.

주 장관은 이날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에서 'IoT 가전산업 간담회'를 개최하고 "**IoT 가전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**"면서 이 같이 밝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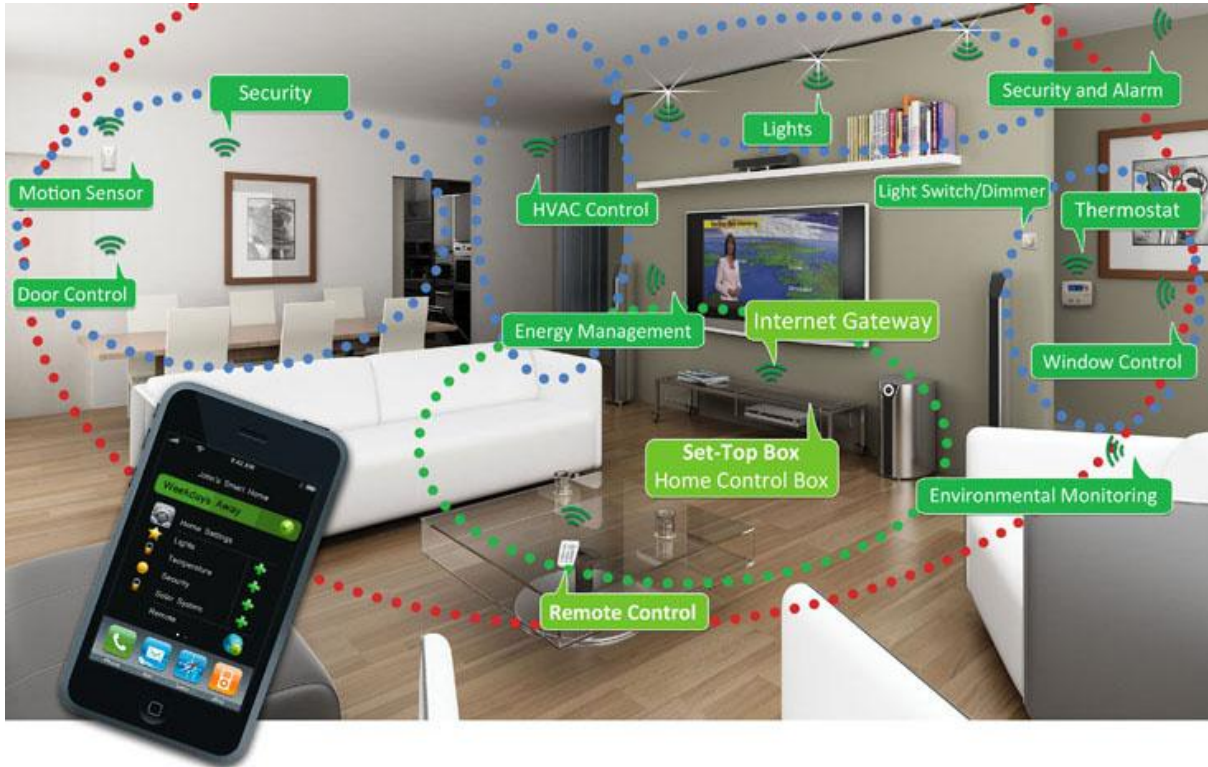
먼저 그는 "가전시장은 내수와 세계 시장 모두 포화상태로 새로운 활로 모색이 필요하다"고 IoT 가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.

주 장관은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국내 주거시장과 연계하고 소비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.

그는 "전자부품연구원과 NH 공사 등이 협력해 **IoT 가전제품이 도입된 신규 공공공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IoT 가전을 통해 절약한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수요자원 거래시장도 개편할 것**"이라고 설명했다. 이어 "해외진출을 위해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실증랩을 구축하고 쿠웨이트,

볼리비아 등 케이스마트시티 해외사업 설계시 IoT 가전이 포함될 수 있도록 당사국과 협의할 것"이라고 덧붙였다.

특히 주 장관은 IoT 가전 분야에 있어 중요한 시스템반도체와 첨단센서를 개발하기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민관합동으로 약 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 이를 통해 전력사용을 줄일 수 있는 파워반도체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.



The Smart Home will be implemented in 3 phases:

Phase 1 - RF-based Remote Control for Set-Top Box and CE, including internet connectivity

Phase 2 - Energy Management will latch on, other applications develop simultaneously

Phase 3 - Integrated environmental awareness, safe and secure: the Internet of Things (IoT)

또 "신성장산업 R&D 세액공제 대상에 IoT 관련 기술을 추가하고 제조-IoT 펀드, 반도체 펀드 등을 통해 IoT 기업의 창업 및 인수합병을 지원할 것"이라고 말했다. 이 밖에 주 장관은 "삼성·LG 전자 등 대형가전회사와 SK 텔레콤 등 이동통신사들이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IoT 제품을 연동할 수 있도록 가전사, 이동통신사, 건설사, 국가기술표준원 등이 참여하는 '융합 얼라이언스'를 2017년 1분기 신설할 것"이라고 밝혔다.

그는 "향후 5년간 IoT 가전 및 반도체분야의 전문인력 1300명을 양성하고 IoT 가전 빅데이터 연구센터를 개소하겠다"며 "가전기업, 반도체 등 IT 기업, 제조기업 등 업계를 비롯해 학계와 지원기관의 개방적 협력이 필요하다"고 말했다. yagoojoa@